

경북도, 77명 주한외국대사 초청... “지방외교 관심 커져”

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간담회, 2010년 22명으로 시작 국제교류 사업 네트워킹 중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4회째로, 73개국 77명의 사상 최대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가했다.

이철우지사는 환영사에서 “2010년 22명으로 시작된 행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70여 명의 대사님들을 모시는 의미 있는 연례행사로 성장한 것은 지방 외교에 대한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대변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한 외국공관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주한 외국공관의 각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난 5월 주한외교단 임원단과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MOU 체결과 지난 9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지방 협력 원탁회의’ 등 다양한 행사로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외교류 추진이 주한 외국공관과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면서 “협의회와 주한외국공관이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외교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다.

주한외국공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빅토르 분구 주한가봉대사는 축하에서 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이 지난 5월에 체결한 협력협약을 언급하며,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에도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립국악단의 민요 연가와 사물놀이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는 올해 주한 외국공관과 협력한 사업들을 사

진영상으로 선보이고, 내년에 각 지자체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등 지방의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졌다.

내년에 대구시는 ‘2024 대한민국 미래도빌리티엑스포’, 강원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군산시는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신안군

14개 읍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신안군은 지난 11월 23일 부터 12월 7일까지 각 14개 읍면에서 ‘202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 소금, 젓갈 등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사용한 김장 김치 2만 9천 포기를 4천8백여 세대의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광주시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 나서

광주광역시시는 12월부터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한다.

생태계복원사업은 대규모 공사 때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12월 말까지 국비 4억6000만 원을 투입해 방림근린공원 일대 1만2387㎡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항공우주산업 등 712억 투자 잇따라 순천·광양, 162명 일자리 창출 전망

순천, 누리호 조립·제조설비 공장
광양, 철구조물 제작시설 신설

전라남도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광양시와 협력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아시아티앤씨 주식회사, 케이스틸(주), 거인이앤씨 주식회사와 712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과 광양에 16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순천 울촌제1산업단지에 508억 원을 투자해 민간 우주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사체 생산시설 중 하나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 2, 3단 조립을 수행할 공장을 신설한다.

아시아티앤씨 주식회사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90억 원을 투자해 금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단조립장 예시 사진 /전남도

용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스틸(주)은 광양 황금산업단지에 59억 원을 투자해 배관 작업과 기계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설 등을 신설한다.

거인이앤씨 주식회사도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에 55억 원을 투자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서명운동

행정복지센터·거점지역 중심서 진행

포항지역 최대 현안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시민들이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첫 서명으로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고, 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 및 스페이스워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서명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서명 부스.

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병원의 협조로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서명 부스를 설치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의료계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총결집해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북도-대구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수출마케팅·창업·금리감면 지원

경북도와 대구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경북수출기업협회,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DG B대구은행과 함께 지난 1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수출기업협회는 2023년 기준 회원사가 1083개사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으로 회원 회사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경북도경제진흥원

은 기업의 수출마케팅 등 도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선도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담보비율,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70%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 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고객들에게 1년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증료의 0.2% 이내를 지원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부산시, 108억 모금 목표 캠페인 시작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부산시가 1일 송상현 광장에서 희망 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108억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웃돕기 캠페인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가 주최하는 이번 출범식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언론사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축사 ▲D

SR(주) 기부금 전달 ▲부산은행 ‘손에 잡히는 기부 플랫폼’ 소개 ▲출범선포(온도담점등)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양홍선 KBS부산방송총국장, 이오상 KNN사장, 강남훈 국제신문사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설치·운영될 ‘사랑의 온도담’은 따뜻한 온정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온라인몰 열어

순천시(시장 노관규)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대표 임승규)가 12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 운영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온라인 판매 여력이 없는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오프라인 매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우수’

울산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수거래’란,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전자권유판매업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거래 방식을 띠는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장병호 기자